

훗설 현상학과 심리학

— 지각이론을 중심으로 —

원 승 룡

<目 次>

- | | |
|----------------------|-----------------------|
| I. 머리말 | 3-2. 형태 지각의 내적 요인 II |
| II. 심리학적 지각 이론 | III. 현상학적 심리학의 정초 |
| 1-1. 감각주의 심리학의 기본 원리 | 1. Husserl의 초기적 지각 이론 |
| 1-2. 記述主義的 비판 | 2. Husserl의 후기적 지각 이론 |
| 2-1. 전통적인 형태 지각 이론 | 3. 현상학적 심리학의 이념과 방법 |
| 2-2. 二元論的 지각 이론 비판 | IV. 맺는 말 |
| 3-1. 형태 지각의 내적 요인 I | |

I. 머리말

철학적 인식론의 제문제에 있어서 지각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지각 현상에 대한 철학적 해명은 곧 인간의 근원적 경험 방식에 대한 구조적 해명이기 때문이다. 지각에 대한 체계적 이론은 물론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수립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우리의 관심은 지각에 대한 철학적 해명에 있다. 우리는 실험적 방법이나 조작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각 현상의 본질 구조를 드러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을 철학적 심리학이라 하든 심리학적 철학이라 하든 이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 다만 우리는 첫째, 지각 현상의 해명이 좁은 의미의 경험 과학적 심리학의 영역에서 시도될 때 가능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둘째, 지각 현상의 분석을 통해 의식 일반의 구조적 해명이 가능하며 나아가서 의식과 대상의 관계, 인간의 세계 이해와 실천적인 企投 방식이라는 폭넓은 철학적 지평에 접근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이 글은 현상학적 심리학이라는 독특한 심리학의 입장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밟아 간다. 현상학적 심리학은 Husserl의 현상학적 철학이 심리학적으로 투영되어 나온 산물이다(물론 현상학적 심리학이 Husserl의 독점물은 아니다). 우리는 전통적 심리학의 몇 가지 근본적 오류를 극복하는 심리학의 조류와 Husserl의 현상학적 심리학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약간의 비판도 첨부할 것이다. 이는 비단 현상학이 심리학사적으로 가지는 의의 뿐만 아니라 현상학적 방법이나 현상학적 철학을 재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II. 심리학적 지각 이론

1 - 1. 감각주의 심리학의 기본 원리

17~19C 에 걸쳐 이룩된 聯想主義나 要素主義(構成主義) 심리학¹⁾과 같은 감각주의적 경험 심리학의 기본적인 가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의식이란 독립적인 제요소들(판념이나 감각 소여)의 단순한 총합이다.
- (2) 물리적 사건으로서의 자극은 신체적 감각과 恒等的으로 대응한다.— 소위 恒常假說 (Konstanzannahme)²⁾

(1)의 가정이 함축하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의식이란 의식의 내용들(Inhalte)의 단순한 총합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모든 의식 내용은 가장 단순한 의식 요소의 복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식은 언제나 그 의식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로 갈라 낼 수 있다. 아무리 복잡한 의식 내용일지라도 몇 가지 기본적인 독립적인 요소로 환원될 수 있다. 그러한 궁극적인 최소 요소는 바로 原子的인 감각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한편 의식의 최소 단위(unit)가 무엇이든 간에 각각의 최소 단위는 각자의 고유한 개체성과 동일성(Identität)을 보존한다. 그 최소 단위가 일정한 불변적 個性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이질적인 요인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의 모임인 복합적인 의식 내용도 아무런 성격도 갖지 못하는 것이 되며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은 아무 것도 의식하지 못한다는 모순에 빠진다. 의식의 대상은 항상 무엇으로 고정되고 규정된다. 전체적 대상이 그 무엇으로 認知되어 있다면 대상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도 그 무엇으로 고정되고 규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식은 원칙적으로 受動的이다. 의식은 자기 고유한 개성을 지닌 감각 소여를 새로운 가공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이들 소여를 모으고 분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신적 활동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의 가정은 결론적으로 말해 원자론적이고 감각주의적이다.

한편 (2)의 가정은 전통적인 경험 심리학 일반에 걸쳐 암암리에 용인되고 있던 기본적인 전제다. 이 가정에 따르면 물리적 사건과 생리적 사건과 심리적 사건은 하나의 因果的인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경험적 의식의 과정의 제일 원인은 언제나 물리적 사건으로서의 자극(Reiz)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험적 의식 과정의 변천은 오직 자극의 변천에서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극이 동일한 것이면

1) 연상주의의 대표자로서는 Locke 나 Hume 등을 들 수 있고 요소주의(구성주의)의 대표자로서는 Wundt, Titchner, Weber, Fechner 등을 들 수 있다.

2) 참고, Landgrebe, Prinzipien der Lehre von Empfinden, pp. 167-168.

Hohlenstein, Phänomenologie der Assoziation, p. 283 f.

Wertheimer, Untersuchungen zur Lehre von der Gestalt, I, p. 47.

이 機制(mechanism)의 마지막 결과인 감각도 항상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 일련의 기제의 각 사전에는 어떠한 다른 이질적인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오직 기계적-인과적 연관만이 존재한다. 적어도 감각(지각)이라는 의식의 영역에서는 자극이 동일한 데 서로 다른 감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모순이다.

한편 (1)의 가정에 따라 의식을 궁극적인 구성 요소로 갈라 낼 수 있다면 그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응하는 외부세계의 물리적 자극이 존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감각의 구성 요소들이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그 중 어느 하나도 외부 자극에서 유래하지 않는 것이 없다. (1)과 같은 ‘심리학적 원자론’의 입장에 따라 의식을 그 구성 요소로 무한히 갈라 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點的 감각-시각 뿐 아니라 청각, 촉각 등도 가능할 것이다.— 에 부딪친다. 그렇다면 모든 감각은 무한히 많은 점적 감각의 총체일 것이고 그 모든 점적 감각 하나 하나가 물리적 자극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의식의 각 구성 요소의 특성을 물리적 자극의 특성으로부터만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 점의 자극은 그 점이 어떤 주위 세계(Umwelt)에 속하고 있느냐, 혹은 그 자극이 어떤 전체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점적 감각을 일으킨다. 결국 (2)의 ‘항상 가설’에 따르면 동일한 자극으로부터 서로 다른 감각 소여가 일어난다거나 동일한 감각 소여에서 서로 다른 대상 지각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생각할 수 없다.

1-2. 記述主義的 비판

상술한 전통적 심리학의 두 가지 기본적 가정에 대한 비판의 단초는 이러하다. ‘무엇이 주어져 있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³⁾ 자연 과학적 추리에 익숙한 우리는 의식 현상의 근원도 의식 밖에서 찾으려는 태도를 갖기 쉽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물리적 현상과 심리적 현상간의 모종의 인과적 대응 관계를 추리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심리적 현상이 물리적 현상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도 문제지만 그것이 가능하다해도 그 환원적 방법이란 심리적 현상의 발생적 기원(Why)에 관여하는 설명적인 모델을 제공할 뿐이다. 그것은 현재의 나의 의식 내용이 무엇이고(what) 어떻게(how) 경험되고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나의 의식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은 결코 물리적 현상이 아니다. 내가 지금 지각하는 것은 ‘빨갳다’라는 의식 내용이지 ‘몇 Å의 光波’가 아니다. 의식이 일단 경험의 주체이고 경험을 일단 감각(지각)과 같은 직접적인 의식 체험에 국한시킨다면 ‘실제로 주어져 있는 것’이란 직접 경험되는 의식 내용뿐이며 ‘주어져야 할 것’이란 사실상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의식의 경험 내용이 물리적 현상과 모종의 관계가 있든 없든 현재의 경험 내용 자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의식의 영역 내에서는 “설명

3) 참고 Gurwitsch, *Studies in Phenomenology and Psychology* (이하 SPP 로 표기) p. 23.

되어야 할 것은 먼저 기술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⁴⁾ 의식에 대한 기술적인(de-skriptiv) 태도의 우선성을 간과하고 의식을 발생적으로만 설명하려는 작업은 의식의 본질과 경험의 구조를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언제나 일면적인 성과만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의식의 직접적인 감각 내용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심리학적 원자론은 그것이 개별적인 감각 요소들이라고 말한다. 즉, 의식은 色, 音, 味, 觸 등 개별적인 감각 소여들을 수용하는 데 이는 사실상 각 감각 소여를 구성하는 무수한 점적인 요소들을 수용하는 데서 가능하다. 이 점적인 요소들은 각기 일정한 특성을 갖는 데 이 특성이 서로 동질적인 것일 때— 이 동질성은 전적으로 외부 자극의 동질성에 의존한다.— 이들이 모여서 일정한 감각 소여를 전달한다. 그러나 사실 이 가정에 따르면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꽃 전체나 어떤 가락을 전체적으로 지각할 수 없다. 나는 어떤 色, 어떤 향기, 어떤 촉감등을 독립적으로 감각할 수 있으나 이 대상 전체를 무엇으로 감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감각 소여는 서로 자체적으로는 동질성이 없으므로 스스로 하나의 대상으로 모이고 구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대상을 하나의 ‘꽃’으로 지각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이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 개별적인 감각 소여를 매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종합 감각(Synästhesis)⁵⁾을 인정하는 입장과 감각의 차원을 넘어선 知的 지각을 인정하는 입장의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점적인 요소들은 항상 각각 자체 동일성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일까? 도, 파, 라(F)의 화음과 레, 파, 라(Dm)의 화음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동일한 음이기 때문에—물리적 자극이 동일하므로— 항상 동일하게 감각된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라와 파는 양 화음에서 동일한 구성 요소이지만 도와 연결해서 들을 때와 레와 연결해서 들을 때 매우 상이한 감각의 질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서 라와 파는 본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다른 음의 영향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라와 파가 본래적으로 가졌던 불변적 특성은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을 것인가? ‘몇 사이클의 음파’라는 그 음의 불변적 특성일까? 우리는 감각적 질의 불변성이나 동일성을 논하는 것이지 물리적 사건의 恒常성을 논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는 점적인 요소들이 각기 고유한 불변적 특성을 가졌다고 믿을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하다해도 그것은 결코 우리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우리의 경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동일한 조건으로 주어진 감각 소여들이 서로 다른 지각적 의미(Wahrnehmungssinn)로 나타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감각 소여들이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존재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4) Boer, *The Development of Husserl's Thought*, p.476.

5) 참고, Hohlenstein, 위 책, p.291 f.

처럼 각자의 고유한 맥락속에 있기⁶⁾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감각적 의식이 점점 감각의 단순한 복합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나아가서 우리는 더 이상 분할 불가능한 감각의 공간적, 시간적 점⁷⁾으로서 모든 의식의 기본적 단위가 되는 요소란 것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의 의식은 낱말의 감각 소여물 이미 하나의 맥락(Kontext, Horizont) 하에서만 감각한다. 아무리 잘게 나누어진 감각 요소들도 하나의 전체적 맥락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가진 부분(Teil)으로서 의식된다. 전체적 맥락을 떠나 있는 독립적인 감각 소여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이미 감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는 '항상 가설'을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항상 가설'은 우리 의식에 명증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의 가설이다. 우리는 동일한 물리적 조건 하에서도 전체 지각적 의미가 상이하게 감각될 수 있는 경우를 언제나 발견한다. 지각적 의미의 다양한 변양(Modifikation)은 물리적 자극의 변화라는 외적 조건만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

2 - 1. 전통적인 형태 지각 이론

우리 의식이 주목함으로써 두드러져 나타나는 대상의 전체적 모양을 형태(Gestalt)라고 부르기로 한다. 우리 의식이 이렇게 대상의 전체적 형태를 지각한다는 것은 명증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형태에 대한 지각 과정을 분석하는 일은 언제나 낱말의 감각 소여의 지각 과정을 분석하는 일에 선행한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감각 소여란 이미 일정한 기능을 지닌 부분으로 의식되는 데 이것은 전체적 형태 구조 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감각의 구성 요소들이 접이든 겹이든 흠이든, 그밖의 어떠한 것이든 이들은 모두 하나의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서만 기능하며 그러한 한에서만 의식된다.

형태 지각(Gestaltwahrnehmung)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은 E. Mach에서부터 형태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향에서 시도되었다. 이들은 기본적인 입장만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우선 von Ehrenfels에서부터 형태는 감각의 단순한 복합 이상의 것(Ubersummavität)으로 파악되었다.⁸⁾ 그는 형태를 형태질(Gestaltqualität)이라 하여 기본적인 감각 소여에 새로이 부가된 성질로 보았다. 형태질은 명백히 물리적 자극으로부터 발생하는 감각 소여는 아니지만 이를 지각하는 데에는 어떠한 특별한 정신적 활동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 이는 의식이 기본적 감각 소여를 감득하자마자 자동적으로 덧붙여지는 새로운 성질로 볼 수 있다. Ehrenfels의 형태질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애매하다고 생각한 Graz 학파(Meinong, Benussi, Witasek, Ameseder 등)는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Ehrenfels가 부인한 바로 그 '특별한 정신적 활동'을 인정하였다. Meinong 이래로 '복

6)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p. 6. ()는 필자의 삽입.

7) Hohlenstein, 위 책, pp. 286-287.

8) 이하, Gurwitsch, Field of Consciousness, p. 1, Chap 3. 참조 (이하 FC로 표기)

합체(Komplex)나 '판계'와 같은 고차적 대상(Gegenstände hoher Ordnung)은 감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주관의 산출(Produktion)로 생각되었다. '산출'이란 기본적 감각 소여(Inferiora)를 토대로 이를 자유로이 변양하여 고차적 대상(Superiora)을 만드는 이질적인 표상 능력을 의미한다. 한편 C. Stumpf와 Husserl은 이 '산출'의 개념에 불만을 갖고 Ehrenfels의 견해로 다시 접근한다. 형태 지각은 어쨌든 직접 경험의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知的인 의미가 담긴 '산출'의 개념 — Meinong은 '내적 지각'이라고 부르긴 하였지만 — 은 이들에게는 부적합한 것이었다. 이들은 따라서 형태 지각을 일종의 '인지되지 않는 감각'(unbemerkte Empfindung)⁹⁾으로 생각하였다. Stumpf의 '용해'(Verschmelzung) 개념이나 Husserl의 '형태적 요인'(figurale Momente)의 개념은 형태 지각을 가능한 한 감각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데 쓰여졌다.

그러나 상술한 형태 지각을 설명하는 여러 시도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오류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기본적으로 '항상 가설'을 암암리에 용인하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Stumpf와 Husserl의 좀 더 개선된 이론에서도 기본적인 감각 소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고유한 개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그것이 어떠한 전체적 형태의 구조 속에 용해된다 하여도 자신의 고유한 현상적 동일성(phenomenal identity)에는 아무런 결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恒常적인 감각 소여가 언제나 기초적인 것이 된다면 이들이 모여 이루는 형태의 새로운 지각적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유래하는가? 이것이 또한 감각에서 유래하는 것이라 한다면 형태도 일종의 감각 소여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태 지각은 감각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고차적인 경험 영역, 즉 '지각'의 영역에 속한다는 견해가 강력해졌다. 이렇게 됨으로써 경험적 의식을 감각과 지각의 두 층으로 구분하는 二元論의 입장이 대두한다.¹⁰⁾

2-2. 二元論의 지각 이론 비판

형태 심리학이 나오기 전까지의 전통적 심리학은 대체로 형태 지각은 물리적 사건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의미의 감각과는 다른 특수한 종류의 감각 — 보다 지성적으로 해석하든 보다 감성적으로 해석하든 사실 별 차이가 없다. — 이라고 믿었다. 이 특수한 감각은 일반적 의미(좁은 의미)의 감각을 토대로 해서만 가능하지만 그것과 동질적인 감각은 결코 아니다. 형태 지각은 그에 대응하는 물질적 자극을 외부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한 형태는 개별적인 감각 소여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태 지각은

9) 이러한 생각은 Stumpf나 Husserl에 있어서 모두 초기적 입장에 국한된다.

참고, Hohlenstein, 위 책, p. 283. Gurwitsch, F.C., p. 126. pp. 20-21.

10) 이 구분의 시초는 Th. Reid (1710-1796)로 알려져 있다. 참고,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e*, Bd. 6. 항목, <Wahrnehmung>

일반적 의미의 감각과 형태는 일반적 의미의 감각 소여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 심리학이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좁은 의미의 감각과 이를 기초로 전체적 형태를 형성하는 지각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입장에 서게 됨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런 입장을 도식적으로 나타내 보면,

$$P = f_1(X_e) + f_2(X_i) \dots\dots \text{Benussi의 도식}^{11)}$$

P : 지각체(형태) X_e : 외적 조건 X_i : 내적 조건

여기서 외적 조건이 일정하다고 보면 ‘항상 가설’에 대한 외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f_1(X_e)$ 도 항상 일정하게 주어진다. 이 일정한 감각을 기초로 해서 지각체는 내적 조건에 따라 변양 가능한 지각 $f_2(X_i)$ 가 이차적으로 부가됨으로써 구성된다. 이 도식이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지각체는 감각과 지각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데 감각과 지각은 하나의 지각체에 대해 서로 이질적인 요인(heterogenous factor)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각은 그저 감각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 지각은 감각과 동일한 연속성이 없으며 감각과는 별개의 의식 영역에 속한다. 내적 조건으로부터만 生起하는 지각은 Graz 학파가 생각한 것처럼 정신의 특별한 산출 활동은 아닐지라도 감각을 넘어서 있는 새로운 차원의 의식의 기능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해서 위 도식의 함축이 갖는 문제점이 곧 드러난다.

(1) 우리의 의식 혹은 경험의 영역에 과연 융합할 수 없는 두 개의 단층이 존재하는가? 경험하는 의식이 일단 지적인 사유 활동과 구분된다고 할 때 감각적인 것도 사유적인 것도 아닌 경험하는 의식이란 어떤 것인가? 또한 지각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의 경계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2) 지각체를 구성하는 데 요구되는 내적 조건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디까지가 외적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소여이고 어디서부터 내적 조건이 가미되어 나타나는 소여인가? 나의 의식의 경험 내용인 소여가 과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가?

‘항상 가설’에 매달려 있는 전통적 심리학은 위와 같은 의혹을 풀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련의 형태 심리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들의 기본적인 노선은 ‘항상 가설’의 완전한 포기였다. 그들은 이러한 노선에서만 (1)형태에 대한 물리적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태의 변양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고 (2)형태 지각을 결국 직접 경험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항상 가설’이 포기되고 난 후의 지각 과정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내 보면,

$$P = f(X_e \cdot X_i)^{12)}$$

이 도식은 한편으로 경험적 의식의 이원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또 한편 경험 내용의 이원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축한다. 이에 따르면 $f(X_e)$ 와 $f(X_i)$ 는 각각 독립

11) Gurwitsch, FC, p. 92.

12) Ibid, p.95.

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각이란 하나의 대상을 형성 인지해 가는 통일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각 과정은 처음부터, 언제나 하나의 텔로스(지각적 의미, 형태)에 향해 있는 동질적이고 연속적인 흐름이다. 이 전체적 흐름이 단절되는 경우는 다른 텔로스를 가지는 다른 지각 과정이 일어났을 때이다. 전체 경험 내용에서 어느 한 부분만을 떼어 내어 이 부분만 독립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이 부분은 더 이상 무엇에 대한 부분이라는 기능을 상실하고 그 자신이 새로운 하나의 텔로스로 전환된다. 또 한편 경험 내용의 측면에서도 감각적 소여와 지각적 소여는 구분될 수 없다. 모든 소여는 처음부터 끝까지 一義的인(einsining) 맥락 하에서만 자신의 의미를 실현한다. 점적인 요소들은 모두 이 일의적인 맥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변양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소여의 제 일 원인으로서의 물리적 세계의 존재를 부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상이란 직접 경험되는 모든 것이며 그 외 아무 것도 아니라면 물리적 세계 자체는 결코 현상이 아니다. 더구나 물리적 사건이 감각과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것은 결코 현상화될 수 없다. 물리적 사건이 지각의 외적 필요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항등적인 감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자극이건 감각된다는 것은 이미 일정한 전체적 구조에 정합하도록 변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소여는 처음부터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의 유기적인 연관 작용 하에서만 인지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내적 조건으로 일그러지지 않은 감각 소여의 본래적 모습이란 없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의식의 직접 경험에 감각과 지각의 두 층이 있다는 견해나 의식 소여에 기초적인 것(Sinnes-daten)이 있고 고차적인 것(Gestalt)이 있다는 이원론적인 견해는 직접 주어져 있는 것의 기술에서 출발하는 심리학의 입장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3 - 1. 형태 지각의 내적 요인 I

그렇다면 형태 지각에 기여하는 내적 조건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물리적 자극이라는 명백한 외적 조건을 제쳐두고 나면 수 많은 조건들이 내적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중대한 요인인가를 탐구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운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형태 심리학자들은 Graz 학파처럼 의식의 능동적인 산출 작용이 형태 구성의 내적 조건이라는 主知主義的 견해를 거부한다. 그들은 가장 원초적인 감각 소여에도 이미 형태적 구조가 있음을 발견했고 이 구조는 지적인 파악 작용(Auffassung)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감각 소여 자체에 내재적임을 역설했다.¹³⁾ 감각 소여는 현상으로서 주어진다. 현상이란 직접 관찰될 수 없는 어떤 것도 부가되어 있지 않는 그 무엇이다.¹⁴⁾ 따라서 현상은 의식

13) 참고, Hohlenstein, 위 책, p.294.

14) 참고, Gurwitsch, SPP, p.31.

의 어떠한 특별한 정신적 활동을 요구하지 않고도 스스로 드러난다. 의식에 수용되는 여러 감각 소여들은 스스로 모이고 흩어지며 돌출하거나 뒤로 물러 선다. 감각 소여의 이러한 다양한 변양은 감각 소여 자체가 가지는 객관적, 현상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지 의식 주관의 자유로운 산출의 결과가 아니다. 지각 과정은 명백히 외적 조건의 인과적 산물이 아니지만 의식 주관의 임의적인 의도에 종속되어 있지도 않다. 지각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것은 주시된 대상이 속하는 지평(Horizont)의 변천과 상호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상이란 항상 우리에게 대해서만 의미를 갖지만 현상 자체의 동질성을 파괴할 능력이 우리 의식 주관에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형태 심리학은 매우 객관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그들의 비판 대상이었던 감각주의적, 자연과학적 심리학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형태 심리학은 형태를 선천적으로 구조화하는 지각의 내적인 필연적인 법칙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법칙은 모든 경험 가능한 것에 대한 보편적, 선천적 토대가 된다.¹⁵⁾ 그러나 이 법칙은 결코 외적 조건에서 연유하는 물리적 세계의 법칙이 아니다. 일정한 구조를 가진 형태가 형성되는 과정은 경험적 의식에 부가되는 새로운 이질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는 인과적인 자극과 반응의 도식적 법칙에 따르는 것도 아니다. 지각은 스스로 형태를 형성하는 내적, 필연적인 양식을 지니고 경험 일반을 가능케 한다. 형태 심리학자들은 지각의 이 내적 양식을 체계화(Organisation)라 부르고 보통 아래의 四種의 체계화의 근본 법칙으로 간주한다.

근접성, 유사성, 완결성, 연속성¹⁶⁾

위 법칙들은 감각 소여들을 체계화하는 형식적 구조를 보여 주는 선천적 법칙들이다. 그러나 위의 법칙들을 통괄하는 보다 기본적인 법칙은 소위 '좋은 모양의 법칙'(Gesetz der Prägnanz, Kurvengerechte Fortsetzung)¹⁷⁾이다. 이는 형태 지각의 내적 조건을 설명하는 데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의식은 동일하게 주어진 외적 조건 하에서도 가장 좋은 모양을, 가장 의미있게(am prägnantesten) 형성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이 경향성은 과거 경험과의 친숙성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편 좋은 모양은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지평의 변천에 따라 변양된다. 이것은 모든 지각 과정이 전경-배경(Figur-Hintergrund)의 구조 하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각 과정이란 어떤 소여들은 전경으로 부각되고 어떤 소여들은 배경으로 밀려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형태는 바로 그 전경이 다시 체계화된 결과이다. 전경과 배경이 형성됨에 따라 체계화되는 형태(theme), 부분(thematic field), 변두리(margin) 등은 주시 대상이 변경되거나 주위 지평이 변함에 따라 뒤바뀔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15) 참고, Hohlenstein, 위 책, p.305.

16) 참고, 정 양은, 「심리학 통론」, p.205.

17) 참고, Gurwitsch, SPP, p.348.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형태 심리학에 의해 제시된 형태 지각의 내적 조건이란 선천적이고 내적인 체제화임을 알 수 있다. 이 조건은 명백히 주관의 능동적인 산출도 아니고 후천적인 습관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며 물리적 세계의 즉자적인 법칙에서 유래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지각 자체의 선천적이고 내적이고 필연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형태 심리학의 입장을 구조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음직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형태 심리학의 설명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까? 우선 우리는 형태 심리학의 입장을 인식론적으로 볼 때 명백히 주관주의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형태 심리학은 고전적 경험 심리학의 실재론적, 감각주의적 입장을 타파했지만 이것이 곧 주관주의에로의 전환을 의미하진 않는다. 주관주의란 일반적으로 의식 주관의 능동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형태 심리학은 오히려 이와는 거리가 멀다. 형태 심리학은 의식 주관의 선천적 경향성을 얘기했지만 주관의 관심, 의도, 욕구 등 진정한 주관적 요인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형태 심리학이 아직 자연주의적 입장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데에 기인할 것이다. 형태 심리학자들은 아직 미리 구성된 세계(ready-made world)나 결정된 존재(determinate being)¹⁹⁾에 대한 실재론적 믿음을 버리지 못했고 현상과 객관적 세계 간의 인과적 연관이나 형태 지각과 생리적 인지 과정간의 대응성(소위 isomorphism 내지 Epiphänomenalismus)²⁰⁾을 믿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자연주의적 색채가 형태 심리학으로 하여금 지각 과정의 보다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규명해 가는 것을 방해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3-2. 형태 지각의 내적 요인 II

형태 심리학의 공적은 보통 우리가 지성의 기능으로 간주했던 여러 의식 현상들이 사실 지각의 본래적 양상들이라는 점을 밝혀낸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태 심리학은 반주지주의적이나 한편 고전적 경험 심리학에 대해서는 일원론적인 지각 이론을 세움으로써 반감각주의적 입장을 확립한 것은 형태 심리학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다.

그러나 형태 심리학의 관심은 여러 의식의 場중에서도 현재 지각에 국한되었고 따라서 공간적 지평의 靜的인 분석에만 치중하게 된다. 사실 '좋은 모양의 법칙' 같은 내적 요인에는 경험적 의식의 시간적 지평이 거의 고려되어 있지 않다. 경험적 의식의 지평은 현재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나 미래로 퍼져 있다. 엄밀한 의미의 지각이란 현재의 지각 과정

18) 참고, Gurwitsch, FC, p. 55 f.

19) 참고, Merleau-Ponty, 위 책, pp. 47-49.

20) 즉 구체적인 체험 과정의 질서는 상응하는 생리적 뇌수 과정의 動的-기능적 반영이라는 입장. 이는 사실 형태 심리학(특히 Köhler)이 범한 가장 큰 오류로 지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비판은 Strauss, *Vom Sinn der Sinne*, p. 317 f.

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 현재 지각은 매 순간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의 끊임없는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현재 지각의 체제화가 고유한 독립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경험이나 예지적 경험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지각의 체제화 과정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면 경험하는 의식의 시간적, 발생적 연관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지각에 체제화되어 들어 오는 형태는 어쨌거나 과거에 축적된 모종의 형태들을 불러 일으킨다(wecken). 이것은 현재의 지각체가 과거에 적어도 한 번 지각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경험에서 축적된 일정한 유형성(Typik)의 구조 안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지각되었던 표상들은 그 인상의 강도나 반복적 경험의 빈도에 따라 강한 유형성을 이루거나 반대로 망각될 수도 있다. 적어도 완전히 망각된 표상이 아니라면 과거의 표상들은 想起를 통해 현재 지각의 표상들과 연합한다. 따라서 현재 지각에 들어 오는 형태가 일정하게 체제화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과거 경험이라는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경험의 강한 유형성은 현재 지각의 체제화와 방향성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각은 과거 경험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자체적 요인을 지니고 있어 과거 경험의 유형성이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지각의 체제화는 여전히 일어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각의 선천적 양상은 우리의 인식적 경험 일반의 토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항상 일면적일 것이다.

또한 형태 심리학의 '지각'은 주관적 능동성(Aktivitat)의 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지각은 일단 직접적 수동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경험이지만 이 때문에 지각이 항상 불변적 선천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논리적 귀결로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각의 선천적 조건이 지각 자체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다.²¹⁾ 지각은 항상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자유롭고 애매한(ambiguous) 가능성에 열려 있다. 대조(Contrast), 착각(Illusion), 항상성(Constancy), 2차적인 단서들(Cues), 선택성, 기대하는 것(Set), 心的 자세, 욕구나 가치 부여의 방향(Motivation) 등²²⁾은 일정한 자극 요인을 다양한 의미 지각의 세계로 인도하는 주관적 요인들이다. 물론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은 일정한 고정불변의 틀이 아니라 그때 그때 지각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상대적, 상황적인 요인들이다. 형태 심리학은 지각 과정에 침투되어 있는 이러한 주관적 의미 이해 방식을 철학적으로²³⁾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선천주의나 형식적 구조주의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21) 참고, Merleau-Ponty, 위 책, p.16.

22) 참고, Royce, Man and His Nature, pp.74-78.

23) 참고, Landgrebe, 위 책, p.167.

II. 현상학적 심리학의 정초

1. Husserl의 초기적 지각 이론

우리는 이 절과 다음 절에서 Husserl의 지각에 관한 입장을 심리학적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 그의 지각 이론을 둘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그의 입장이 색다른 두 가지 측면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대략 처음 것은 초기적인 입장을, 나중 것은 후기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와 후기의 시대적 경계가 뚜렷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와 후기라는 표현이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두 입장의 구분은 시기적인 구분의 관점보다는 내용적인 구분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산술의 철학」 「논리연구」 「이념들」 등에서 Husserl이 초기에 가졌던 지각이라는 의식 체험에 관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이 입장의 기본적인 특징은 곧 질료(Hyle)와 形相(Morphe)의 엄격한 구분이다.²⁴⁾ Husserl은 어떠한 지향성도 갖들어 있지 않은 체험을 감각적 질료 또는 기술적(내실적, 원초적) 내용이라고 부르고 일정한 지향적 기능을 통해 의미 부여된 체험 내용을 지향적 내용(형상)이라 부른다.²⁵⁾ 감각적 질료는 늘 의식에 내재하는 한에서만 여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체적 작용과 체험 내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질료는 어떠한 지향적 구조도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대상 자체로부터 촉발되어 들어 오는 원본적인(originär) 의식 요소일 뿐이다. 이러한 원초적인 질료는 어떤 의미에서 의식의 인지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감각 소여는 "대상적으로 현출하지 않으며,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어떠한 의미에서 지각될 수 없는 것"²⁶⁾이기 때문이다. Husserl에 있어서 질료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각되지 않는다. 질료는 우리 의식의 구성 요소이면서도 동시에 의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묘한 역설적 존재가 된다. 이에 반해서 지향적 내용은 수용된 질료를 바탕으로 '작용'(Akt, 통각)이라는 대상화하는(objektivieren) 의식에 의해 통일적으로 나타나는 대상 전체다. 여기서는 명백히 의식 작용과 의식 내용의 구별이 뚜렷해 진다. 지향적 내용은 감각적 질료에 대해 독립적인 것이며 전혀 이질적인 소여로 보아야 한다. 지향적 내용은 능동적인 작용에 의해 비로소 나타나며 낱낱의 감각 소여를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同一性極'²⁷⁾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각이란 비감각적인 지향적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감각 소여를 수용하는 과정은 여기서 배제된다. 위와 같은 견지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초기의 Husserl이 매우 주지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초기 Husserl은 Graz 학파 계열

24) 참고, Husserl, Ideen I, § 85.

25) 참고, Husserl, LU II / 1, p. 397, LU II / 2, p. 180.

26) Husserl, LU II / 1, p. 385.

27) Husserl, FTL, p. 146.

의 *Meinong* 등과 같이 늘 구체적, 내실적(reell) 요소와 의미를, 실재적 사건과 지향적 체험을 구분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이것은 Husserl 이 늘 의식이란 '잡다의 종합'이라는 전통적인 지각 이론의 공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초기 Husserl 의 '질료'는 언제나 혼돈(chaos)을 의미한다. 감각 소여는 무규정적이고 무의미적이고 의식 주관에 독립해 있는 실재이다.(물론 의식에 내재하는 한에서의 실재이지만) 지각이라는 본래적인 의미의 의식 과정은 무질서한 질료를 하나의 의미로 통일하는 능동적인 지향 작용에서 일어난다.

Husserl 은 형태 지각의 내재 요인 중에서 지향성(의미 부여 작용, 대상화 작용)을 기본적인 원리로 간주하였다. Husserl 의 지향성은 형태 심리학의 체제화 법칙에 비해 보다 넓은 의식의 영역을 포괄하며 보다 주관적인 의식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Husserl 은 초기 지각 이론은 주지주의적 이원론이 갖는 결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Husserl 은 감각적 내용의 '성질' 자체가 본질적으로 맥락의 기능이며 통각의 방식임을 깨닫지 못했다."²⁸⁾는 데에 기인한다. 질료란 무엇인가? 지각되지 않는 질료란 어떻게 가능한가? '질료'는 사실상 분석-반성적 개념이지 결코 기술적 개념이 아니다. 즉, '질료'는 우리 의식 과정 자체로부터 직관적으로 통찰된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물리적 객관 세계에 대응하는 것으로 가정된 질료, 우리 의식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지각되지 않는 질료의 개념은 기술 심리학의 입장에서는 전혀 무의미하다.

Husserl 은 초기에 형태 심리학과 같은 입장에 서서 형태와 형태 지각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마음이 없는 심리학'²⁹⁾(*Psychologie ohne Seele*)으로서의 경험 과학적 심리학을 맹렬히 비판했지만 자신도 역시 恒常적인 객관적 의식 요소에 대한 믿음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Husserl 은 결국 암암리에 전통적 심리학처럼 '항상 가설'을 용인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Husserl 은 1) 감각과 지각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입장에 동참하게 되고 2) '밑으로부터'(von unter her)³⁰⁾라는 감각주의의 입장을 가질 수 없었으므로 자연히 '위로 부터'(von oben her)라는 주지주의적 입장으로 흐르고 말았다.

2. Husserl 의 후기적 지각이론

Husserl 의 현상학이 발전하면서 Husserl 은 점차 '파악 작용이 없는 감각 소여'(Empfindungsdaten ohne Auffassung)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이 시기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대략 그의 현상학이 '靜的 현상학'에서 '動的(발생적) 현상학'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는 Husserl 이 주로 의식 과정의 발생적 측면이나 지각의 動的 구조의 분석, 선술어적 경험 영역의 해명이나 신체 주

28) Hohlenstein, 위 책, p. 101.

29) 참고, Husserl, *Ideen I*, p. 211. 비교, Theo, Herrmann, *Der Wissenschaftsbegriff der Psychologie*, p. 188, p. 200.

30) 참고, Wertheimer, 위 책, p. 48 f. p. 56.

관성(Leibsubjekt)의 기능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 때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부터 Husserl은 요소 감각주의(Datensensualismus)에 대한 비판은 한층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을 구분하는 Descartes적 이원론의 전통을 탈피하려고 노력한다.³¹⁾ 우선 Husserl은 의식을 독립된 요소의 집합체로 보는 요소주의적 심리학적 원자론의 난점을 분명히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³²⁾ 이것은 恒常적인 감각의 요소가 가정된 허구(Fiktum)임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감각 소여가 생활 세계의 순수 직관적 소여를 규정하는 것인 양 억측된 감각 소여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실재적으로 최우선인 것은 前과학적 삶의 단순히 주관-상대적인 직관이다."³³⁾ 여기서 우리는 Husserl이 다른 어떤 사상적 조류보다 의식에 대한 기술적 태도를 철저화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Husserl은 더 이상 '질료에는 어떤 지향성도 없다'라는 초기적 입장을 갖지 않는다. 질료는 더 이상 잡다하고 무연관적이고 즉자적이고 어떤 의미로도 지각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자체적으로, 자체로부터 존재하며 나를 '외부로부터' 촉발하고 의식 이전에 존재하며 나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의식 독립적인' 세계란 없다."³⁴⁾ 명시적으로 표현된 바는 없지만 Husserl의 질료는 이제 어떤 지향성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료의 지향적 구조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 Husserl에 따르면 그것은 '수동적 종합이다. 질료는 '수동적 종합'으로서의 지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지향성의 개념이 '능동적으로 향해 있음'(aktives Darauf-gerichtet- Sein)이나 추리나 사유 작용으로서의 '통각',³⁵⁾ Kant의 의미의 오성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수동적 종합으로서의 지향성은 모든 정립(Thesis)에 선행하는 종합이다.³⁶⁾ 이 지향성은 잡다하고 무차별한 질료에 쏘일 주관적인 인식 범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질료의 통일적 의미에 부합하는 최소한 의식의 통일성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Husserl은 지각 과정의 원초적 근원, 즉 선술어적, 수용적(rezeptiv) 촉발(Affektion)의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종합(통일, 구성)의 과정을 발생적으로 관찰한다. 기술 심리학이 어떠한 인과적 도식에도 의거하지 않고 오직 주어져 있는 의식 현상에 내재하는 본질

31) 참고, Aguirre, *Genetische Phänomenologie und Reduktion*, p.173.

32) 참고, Husserl, FTL, § 107. c), CM, p. 83 f.

33) Husserl, *Krisis*, p. 129.

34) Aguirre, 위 책, p.166.

35) 우리는 Husserl의 '통각'의 개념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각은 '직접 주어진 것을 넘어선 사념'의 뜻으로 사용되어 일종의 술어적 판단 작용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후기로 갈수록 직접적 파악 작용, 예를 들어 연상적 종합이나 지평 의식을 가리키는 데 흔히 나타남을 주목해야 한다.

(참고, Husserl, CM, p.141, Aguirre, 위 책, § 33,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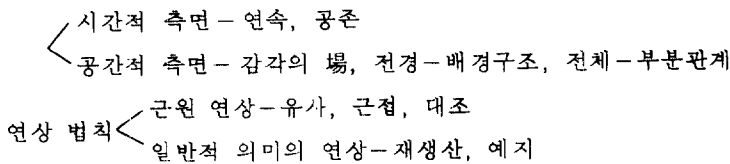
36) Husserl, *Ideen II*, p. 22.

구조를 발견하려 한다면 제 의식 과정의 의미 연관을 의식에 즉해서 근원으로 소급하여 발생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기술주의적 입장에서는 의식과 무관한 어떠한 대상 개념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의식의 고유한 양상에서 유래하지 않는 어떠한 설명의 원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Husserl은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Brentano나 형태 심리학이 기술주의적인 태도를 철저히 밀고 나아가지 못했음을 비판할 수 있었다. Brentano는 내적 순수 의식 현상으로의 환원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의식 현상을 결국 자연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³⁷⁾ 형태 심리학은 ‘전체성’을 완성된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 발생적 기원을 고려하지 않았으며³⁸⁾ 전체의 부분에 대한 우선성만을 주장했지 그 근본적인 출발점인 대상 구성적 자아의 기능(ego cogito)을 간과했다.³⁹⁾

Husserl에 있어서 지각이라는 의식 과정은 초기에나 후기에나 결국 ‘본래적인 종합 작용의 현상’⁴⁰⁾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Husserl이 후기에 들어서서 주목하는 종합 작용은 지적, 이차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의식의 영역에서부터 발생하는 근원 현상이다. 이 원초적인 수동적 종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간적 종합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연상적 종합의 측면이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연상 심리학과의 대비에 중점을 두어 연상적 종합의 특성만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Husserl에 의하면 연상적 종합은 悟性이 수행하는 대상적 종합과 구분된다. 연상적 종합은 대상 구성의 한 단계일 뿐 연상 심리학이 생각한 것처럼 대상의 인식 과정의 전부 는 아니다. 그러나 연상 작용은 대상의 구성 과정에 필연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주 관 속에서 하나의 대상계가 구성되려면 촉발적 통일이 구성되어야 한다. 즉 질료적 영역 에서, 그리고 생생한 현재 속에서 촉발적, 질료적 통일이 서로 동질적으로, 필연적인 양 식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⁴¹⁾ Husserl이 설명하는 연상 작용의 조건과 법칙을 간단 히 도식화해 본다면⁴²⁾

연상의 선행 조건 : 정돈 형식



중요한 것은 Husserl이 제시하는 이러한 연상 조건과 법칙이 어떤 의의를 갖느냐 하는

37) 참고, Husserl, Ph. Ps. p. 247, 268. Krisis. p. 236.

38) 참고, Husserl, FTL § 107, b), c).

39) 참고, Husserl, CM, § 16.

40) Husserl, PS, p. 137, 참고, CM § 17.

41) Husserl, PS, p. 162.

42) 참고, Husserl, PS. §§ 26-31. Hohlenstein, 위 책, § 75.

것일 것이다. 이 점은 전통적인 연상 심리학의 법칙이 갖는 의의와 비교할 때 잘 드러난다.

전통적 연상 심리학	Husserl의 연상 심리학
1) 정신에 작용하는 중력법칙 ⁴³⁾	순수 자아에 근거한 지향적 본질법칙
2) 의식 외적 요인에 의해 지배 우연적, 실재적 결합 원리	의식 내적인 구조 원리 필연적, 내적 결합 원리
3) 인과적 연관에 의한 기계적 발생	주관의 일정한 동기화에 의해 발생
4) 과거 경험이 근원적	현재 표상의 근원 연상이 원초적

전통적인 연상 심리학에 대항하는 Husserl의 현상학적 심리학은 대체로 형태 심리학이나 그 이후 Merleau-Ponty와 같은 계열에서 있다. 이들 사이에는 일치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으나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연상 작용은 주관의 일정한 동기화 작용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의식 외적인 요인을 거부하고 의식 현상을 자체 내의 고유한 구조 원리에서 해명한다는 입장이다.

3. 현상학적 심리학의 이념과 방법

위와 같은 Husserl의 지각 이론에 대한 고찰은 현상학적 심리학을 정초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 고찰로 볼 수 있다. 개별적인 지각 이론 자체는 세부적 심리학적 이론이지만 여기에는 현상학적 심리학만이 갖는 독특한 방법과 이념이 시사되어 있다. 나아가서 우리는 현상학적 심리학이 철학적으로 갖는 의의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Husserl의 초기와 후기의 입장의 차이를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통찰하여 새로운 철학적 심리학으로서의 현상학적 심리학의 체계를 수립해 볼 것이다.

현상학이 '의식의 분석'을 목표로 하는 학임을 일단 인정한다면 현상학이 심리학의 영역에 깊이 관여하거나 심지어 일종의 새로운 심리학으로 간주된다고 하여도 사실 이상할 것은 없다. Husserl은 「논리 연구」에서 현상학을 기술 심리학으로 정의하였다. 물론 그는 스스로 이러한 정의의 협소함을 간파하고⁴⁴⁾ 현상학을 기술 심리학 이상의 것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곧 Husserl이 기술 심리학의 기본 입장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식 체험의 기술적 분석'을 특징으로 하는 현상학적 심리학의 관점은 Husserl의 저작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있다. 그의 현상학의 기본적 계획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의 모든 저작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도 현상학 이해의 한 가지 길일 것이다.

43) 참고, Husserl, CM, p. 114.

Wertheimer, 위 책, p. 48f, p. 56.

Merleau-Ponty, 위 책, pp. 15-20, p. 53f.

44) 참고, Husserl, LU II / 1, S 18.

기본적으로 Husserl은 의식에 관한 學으로서의 심리학이 철학의 기본학이라는 태도를 견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태도는 '의식'을 최초로 철학의 중심 테마로 삼은 Descartes의 유산이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다른 과학에 선행하여 다른 과학을 정초하는 學으로서의 심리학⁴⁵⁾을 수립하려 했던 Brentano나 Stumpf의 영향에서 나온 것이다. 이 밖에도 Meinong이나 Cornelius, 그리고 형태 심리학자들의 기본 입장도 Husserl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한편 Husserl은 자신의 현상학적 심리학이 동시대의 다른 심리학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Husserl에 따르면 현상학적 심리학만이 "심리학의 學으로 엄밀한 형태"⁴⁶⁾이며 다른 심리학과 과학에 대해 우선적인 기본학이 될 수 있다. Husserl이 현상학적 심리학을 수립하게 되는 근본 동기는 특히 19C초에 흥미했던 사실학으로서의 심리학, 즉 정신-물리적 경험 심리학에 대한 반발해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상학적 심리학의 특성은 무엇보다 경험 과학적 심리학과 비교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경험 과학적(자연주의적, 설명적, 발생적, 정밀) 심리학 : 의식내적인 심적 사건의 기원을 의식 외적인 물리적 사건의 두 고 두 사건간의 인과관계를 도식적으로 구성함.

현상학적(形相的, 선천적, 기술적, 순수) 심리학 : 심적 사건의 본질 구조를 어떠한 가설이나 공리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의식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기술적인 방식으로 통찰함.

여기서 경험 과학적 심리학이란 전장에서 이미 비판적으로 고찰된 바 있는 요소주의와 연상주의를 포괄하는 감각주의적, 실험적, 분석적 심리학 일반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현상학적 심리학은 기술주의적인 경향에서만 볼 때는 Brentano, Stumpf, 나아가 형태 심리학의 기본 입장과 Husserl 이후의 Merleau-Ponty나 Gurwitsch 등에게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 명백히 현상학적 심리학이 Husserl의 독점물은 아니다. 그러나 현상학적 심리학의 이념과 방법은 Husserl에 의해서 비로소 체계가 잡힌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의 현상학적 심리학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선 Husserl은 의식에 직관적으로 체험되는 심적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자연적 태도에서 가지는 모든 선입견을 배제할 것을 권한다.⁴⁷⁾ 이 선입견이란 일상적 신념이나 경험 과학의 영역에서 무반성적으로 신봉되는 전제나 가설을 말한다. 이러한 선입견은 심적 현상의 순수한 모습을 관찰하는 데 항상 방해물이 된다. 이렇게 볼 때 현상학적 심리학으로 입문하는 첫째 절차는 곧 철저한 반성이다. 이 철저한 반성은 '현상-심리학적 환원'이라고도 불리는 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비로소 체험되는 것 자체의 영

45) 참고, Spiegelberg,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Vol. 1, p.36. pp.59-61.

46) Husserl, Ph. Ps. p. 287.

47) *Ibid*, p.312.

역에 들어 설 수 있다. 현상학적 심리학의 탐구 영역은 소위 '순수 의식 현상' '순수 현상학적 경험' '노에마적 현상' '단적으로 직관된 세계'라 불리는 의식의 직접적인 소여이다. 모든 심리학이 의식 현상을 관찰한다고 하지만 현상학적 심리학이 볼 때 그것은 순수 의식 현상이 아니다. 순수 의식 현상은 잠재적이든 명시적(explizit)이든 어떠한 논리적 추상화 작용과 관계없이 의식에 직접 지각되어 있는 모든 것이며 그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두운 밤에 강물 속에서 한 물오리의 소리를 들었다고 가정해 보자.⁴⁸⁾ 사실 내가 명증적으로 지각한 것은 일련의 짹짹거리는 소리였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소리가 둥근 회색 머리에 노란 부리와 달려진 꼬리를 가진 새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나는 내 경험에 비추어 그런 소리는 보통 물오리에게서 나온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소리가 어떤 사람이 물오리를 흉내 내어낸 소리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소리가 정말 물오리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혹은 그 어느 것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객관 세계의 문제일 뿐이다. 나의 의식이 직접 지각한 것은 '짹짹'이라는 소리일 뿐이다. 우리는 현상학적으로 '짹짹'만을 지각의 대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에서 우리는 실제로 나의 의식 속에 주어져 있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만(지각된 형태와 주위의 지평 구조) 이해될 수 있지 그 뒤의 어떤 초월적, 객관적 실체로부터 이해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언제나 현상학적 심리학의 "시작은 순수하고 소위 말이 없는 경험이다."⁴⁹⁾ 이러한 순수 경험은 우리가 어떠한 선이해도 배제하고 '참여하지 않은 방관자'⁵⁰⁾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제 환원을 통해 의식의 직접적인 소여의 영역이 開明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일상적으로도 '감각에 주어진'(sense-given) 혹은 '감각 소여'라는 말을 흔히 쓴다. 그런데 감각에 주어진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현상학은 대체로 의미 또는 본질이라고 대답한다. 현상학적으로 볼 때 감각한다는 것은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다.⁵¹⁾ 우리는 여기서 본질 또는 의미란 말에 얽힌 전통적인 철학적 논쟁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의미 또는 본질이란 여기서는 형이상학적으로 검토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느낄 때 다른 대상들로부터 분리되어 전면에 부각되며, 자신의 고유한 내재적, 정합적 법칙에 따라 구성되는 전체적 형태다. 명백히 내가 보는 것은 광과나 망막에 투영된 스크린이 아니며 내가 듣는 것은 고막을 진동시키는 일정량의 음파가 아니다. 보고 듣는다는 것은 이미 무엇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각 소여를 의식 영역 밖에 있는 어떤 실체로 오해해서는 안되며 의식이 내적으로 소여화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 의미는 나의 신념이나 환상의 가공적 산물이 아니라 경험적

48) Mundle, *Perception*, pp.13-14.

49) Husserl, CM, p. 77.

50) Husserl, Ph. Ps. p. 313.

51) Merleau-Ponty, 위 책, p. 10.

의식 속에 침투되어 있고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현상학적 심리학의 목표는 순수 심적 현상의 본질 구조(현상의 의미 내용과 의미 발생)⁵²⁾를 기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상학적 심리학은 사실학이 아니라 본질학이다. 따라서 이는 사실의 측량이 아니라 사실의 본질 구조의 발견에 주목한다. 이는 관찰된 현상들을 통계적 자료로 이용하거나 일정한 가설하에 포섭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적 현상들의 순수한 기술적 내용을 찾아 내고 각 의식 내용들의 의미 연관과 의식 주관과 연관된 의미 발생의 본질적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 본질 구조는 경험으로부터 귀납된 것도 아니고 추상적 개념 체계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명증적 직관에 의해 선형적-반성적으로 통찰될 뿐이다. 현상학의 의식 분석에서 나오는 주요 개념인 '지향성'이라든가, '수동적 종합' '시간 의식의 통일' '연상적 종합' 등은 이렇게 경험적 의식 과정의 본질 구조를 이해하는 개념들이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현상학적 심리학의 특성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Husserl은 Brentano 등에 남아 있는 경험 과학적 색채를 완전히 지우고 기술 심리학의 방법을 더욱 철저화했다고 볼 수 있다. Husserl은 생리학적 근원을 추구한 형태 심리학의 자연주의를 배격하고 의식 자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본래적 의식의 場을 특히 시간적 지평 위에서 폭을 넓혔으며, 지향성, 동기등 보다 주관적인 의식 작용의 내적 요인을 도입함으로써 인본주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에로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Husserl이 경험 과학적 심리학을 매도하고 현상학적 심리학을 유일한 심리학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는 당대 심리학이 물리학의 방법을 모방하여 단지 정신-물리적 연관만을 고려하는 편협성을 지님을 경고하고 그러한 경험 과학적 탐구에 선행해서, 혹은 그와는 다른 차원에서 의식 현상이 해명되어야 함을 보여주려 했을 뿐이다. 그 차원이란 인간 의식의 본래적 기능과 순수하게 주어진 대상과 의미로서의 세계의 지평 위에서 의식 현상의 본성을 규명한다는 것이다.

사실 현상학적 심리학의 탐구는 위와 같은 규명으로 완성될 수 없다. 현상학적 심리학은 Husserl 이후에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우리는 Husserl의 현상학적 심리학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이 이상의 발전을 위해 그의 이론이 갖는 한계점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Husserl이 생각했던 '경험'이란 늘 순수 경험, 즉 대상에 대한 모든 사유적 판단을 차단할 때 드러나는 선술어적이고 탈이론적인 실재의 기본층을 구성한다.⁵³⁾ 그러므로 의식의 직접적인 감각 경험은 사태 자체를 드러내는 선천적 필연적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52) Buytendijk, Die Bedeutung der Phänomenologie Husserls für die Psychologie der Gegenwart, p. 333.

53) Handbuch, p. 1671.

과연 이론 중립적인 (theory-neutral)⁵⁴⁾ 순수 경험이란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제일 차적 질료를 수용하는 순수 경험에는 어떠한 역사적 침전물도 허용되어 있지 않은가? Husserl의 경험 이론은 아직 唯我論的이고 선천주의적, 비역사적 선천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정신이라면, 역사가 없다면, 우리와 세계 간에 어떤 장애물도 없다면, 경험적 자아가 선천적 자아에 의해 구성된다면…… 어떻게 오류가 가능하고”⁵⁵⁾ 또한 지각적 의미의 가변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각은 최저차원의 경험이지만 경험적 의식이 지각적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은 불변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다. 지각이란 하나의 태도 (Verhalten)다.⁵⁶⁾ 지각은 물리적 사건과 같은 어떤 하나의 객관적 과정이 아니다. 지각은 우리가 세계와 일차적으로 관계하는 방식이며 의식과 세계의 상호충돌 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이다. Husserl의 심리학적 의식 이론은 명백히 인간주의적 전향에 다리를 놓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도 상호주관적, 세계 내 존재적 인간의 위치 설정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五感의 구성은 전 세계사의 작업”⁵⁷⁾이라는 K. Marx의 말이 시사하는 대로 주위 세계와 관계하는 인간 의식의 場은 오직 개인적인 것일 수는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는 말

위에서 우리가 다룬 것은 심리학과 현상학을 나누어 그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목표는 일종의 새로운 심리학, 또는 심리학적 철학이라는 현상학적 심리학의 독특한 이념과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과연 위와 같은 철학적 심리학의 탐구가 철학적 현상학과 어떻게 연관지워지는지 한 마디로 성급하게 얘기될 수는 없다. 우리는 여기서 심리학과 철학을 의식적으로 구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위와 같은 심리학적 논의에서도 이미 철학적 차원의 논의들이 충분히 함축되어 있다고 믿는다. Husserl의 현상학적 심리학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해명하는 철학이다. “심리학자들의 탐구 영역은 언제나 철학의 사명 영역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심리학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철학적 양식이 있는 것이다.”⁵⁸⁾ Husserl은 심리학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으로 믿었다.⁵⁹⁾ 그러나 현상학적 심리학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이 심리학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 난 것은 아닐 것이다.

54) Mundle, 위 책, p.15.

55) Merleau-Ponty, 위 책, p.45

56) Asemissen, Das System der Sinne, pp.100-101.

57) Handbuch, p.1678.

58) Buytendijk, 위 책, p.320.

59) 참고, Krisis, § 60.

Husserl의 현상학적 심리학은 사실 그 이후의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현상학적 심리학이 본래 가지고 있던 철학적 이념때문일 것이다. 그 이념이란 "인간적 실존으로, 구체적인 세계 내 존재어로, 의미 부여의 지평 속에서 일어나는 현존재의 企投와 세계 구성의 형식에로의 전향"⁶⁰⁾이라는 것이리라.

참 고 문 헌

- A. Aguirre, *Genetische Phänomenologie und Reduktion*, Den Haag, 1970.
- von H.U. Asemissen, Das System der Sinne, in *Phänomenologie und Wissenschaften*, Freiburg, München, 1976.
- Theodor, de Boer, *The Development of Husserl's Thought*, The Hague, 1978.
- F.J.J., Buytendijk, Die Bedeutung der Phänomenologie Husserls für die Psychologie der Gegenwart, in *Selected Essays on Phenomenology*, 한국현상학회, 1979.
- A. Gurwitsch, *Studies in Phenomenology and Psychology*, (SPP) Northwestern Univ., Press, 1966.
- ders, *The Field of Consciousness*, (FC) Duquesne Univ. Press, 1964.
- Theo, Herrmann, Der Wissenschaftsbegriff der Psychologie, in *Der Wissenschaftsbegriff*, hrsg. von A. Diemer 1970.
- E. Hohlenstein, *Die Phänomenologie der Assoziation*, Den Haag, 1972.
- E. Husserl, *Logische Untersuchungen*, Bd. 2. 1, 2. Teil (LU II/1, LU II/2)
- ders. *Ideen zur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die Phänomenologische Philosophie*, Bd. 1. 2. (Ideen I, II)
- ders, *Analysen zur Passiven Synthesis*, (PS)
- ders, *Phänomenologische Psychologie*, (Ph. PS.)
- ders, *Cartesianische Meditationen*, (CM)
- ders, *Formale und die transzendente Logik*, (FTL)
- der,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Krisis).
- L. Landgrebe, Prinzipien der Lehre vom Empfinden, in *Selected Essays on Phenomenology*,
- M.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by C. Smith, 1962.
- C.W.K. Mundle, *Perception: Facts and Theories*, Oxford Univ. Press, 1971.
- James, E. Royce, S.J., *Man and His Nature*,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61.

60) Buytendijk, 위 책, p. 333.

H. Spiegelberg,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Vol. 1. The Hague, 1960.

E. Strauss, *Vom Sinn der Sinne*, Berlin, 1956.

M. Wertheimer, Untersuchungen zur Lehre von der Gestalt, *I Psychologische Forschung*
Vol. 1, 1922.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 Bd. 6. München, Kösel-Verlag, 1974, < Wahrnehmung >

정 양은, 「심리학 통론」, 1976.

이 의철, 「심리학사」, 1970.